

# 중증심신장애자를 품안에.. 오사카 W.I.N.G

전직 기자출신들, 국제교류  
봉사활동에도 영역 넓혀..

복지 선진국 일본에서 NHK 등 전직 기자출신이 주요구성원이 되어 비영리민간단체법인(NPO)으로 설립된 WING(the Way Into the New Generation, www.yourwing.org)은 중증 심신 장애인에 대한 복지 활동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이 단체는 '중증 심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집에서 두문불출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장애인의 일상을 지원하고 예술활동, 콘서트 등 사람이라면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일들을 장애인들도 즐기고 느낄 수 있도록 진정한 복지를 찾아 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본 제2의 도시인 오사카에 거점을 두고 지역 밀착형의 활동을 기조로 하면서 NPO법인으로서의 전국 굴지의 규모로 커지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과 문화향유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외의 여행 지원이나, 콘서트, 프리마켓 같은 이벤트 주최 등을 통한 지역 교류 사업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통해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봉사자를 받아들여 국제교류 활동에도 영역을 넓히고 있다.



## WING의 '바람,꿈' 프로그램

'바람,꿈'은 WING이 기획한 사회복지 국제교류·연수 프로그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직접 일본에 와서 참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수기간은 직장인을 주된 대상으로 하는 3일간 코스와 5일간 코스, 학생을 대상으로 한 2주코스과 1개월코스가 있으며 최장 1년간 일본의 사회 복지현장을 장기간에 걸쳐서 체험하는 '워킹 홀리데이코스'가 있다.

연수내용은 <체험X견학X강좌X교류>라는 4개의 큰 테마에 각 테마별로 구체적인 연수활동을 배치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연수 프로그램처럼 1~2시간 복지시설을 견학하고 끝나는게 아니라 법인 시설에서 실제로 여러 활동을 체험하면서 일본 사회복지를 자신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험 견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망자에게는 수수료 발행도 가능하며 학생은 봉사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검토중에 있다.

WING은 현장 체험과 시설 견학을 통해 종합적인 연수를 지원하고 견학 시설에 대해 사전에 정보를 주어 구체적인 연수 계획을 참가자가 직접 짤 수 있게 했다. 자세한 내용과 비용은 이메일 (info@yourwing.org)이나 홈페이지 (www.yourwing.org)를 통해 할 수 있다.

김영삼 기자